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영사 1부장 안진희
전화 061-280-4311 / 팩스 061-280-4313

보 도 자 료 2020. 5. 26.(화)

자료문의 : 형사1부장실
전화번호 : 061-280-4308

제 목 **조기잡이철, 「외국인 선원 불법 취업시키고 2억 원 쟁건」 브로커 구속 기소**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-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(지청장 유종완)은, 조기잡이철을 맞아 외국인 선원들을 불법 취업시키고 약 2억 원의 커미션을 받은 베트남인 브로커를 구속 기소함
- 지역 특성상 조기잡이 철(7월 ~ 이듬해 1월)에 선원이 부족하여 외국인 선원들을 취업시켜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나, 선원들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는 상황
- 이러한 상황에서 원 취업지에서 이탈한 외국인 선원들을 빼돌려 관내 선주에게 불법 취업시켜 주고 그 대가로 2억여원을 취득함
-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(지청장 유종완)은, 서해지방해양경찰청,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외국인 선원들의 불법취업 및 브로커 근절에 힘쓸 예정임

① 수사배경

- 조기잡이 철(7월 ~ 이듬해 1월) 선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 상황을 이용하여 전국의 외국인 선원들이 목포지역 등 관내에 근무지 변경 허가 없이 불법 취업하여,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를 무색케 하고 근로질서를 교란하는 상황이 만연

- 선주에 대한 수사 중 위와 같이 근무지 변경 허가 등을 받지 않은 베트남 선원들을 주로 공급해주는 브로커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질서의 교란을 막기 위하여 수사에 착수

②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- 피고인
 - A○○○(28세, 베트남, 일용직)
-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
 - '19. 7. 23. ~ '20. 4. 29. 선주 B○○에게 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베트남인 선원 4명을 제공하여 위 선박에 승선하게 하고 대가로 310만 원을 받는 등 허가 없이 총 24명의 선주에게 91명의 선원을 공급하고 약 2억 원을 받아 [직업안정법위반, 출입국관리법위반]

③ 수사경과

- '19. 12. 선주 B○○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
 - * 수사 중 베트남 선원을 공급하는 브로커가 있다는 사실 확인
- '20. 5. 8. 직업안정법위반 등 인지, 피의자 체포 및 압수수색 실시
 - * 수사 중 베트남 선원을 공급하는 브로커가 있다는 사실 확인
- '20. 5. 10. 피의자 구속
- '20. 5. 26. 구속 기소

④ 참고사항

- 불법취업 외국인 선원, 선주와 브로커와의 유착관계에 경중
 - 목포 등 관내 지역은 조기잡이 철에 타(他)지역보다 선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 임금이 2배로 상승하는 이유로 전국의 외국인 선원들이 다수 유입되고, 지역 선주들이 한국인 선원의 부족 및 고액의 한국인 선원 인건비 문제로 고민하는 점 등을 이용하여, 외국인 전용 브로커들은 외국인 선원으로 하여금 근무지 무단이탈 후 관내

지역에서 불법 취업하도록 적극 권장함으로써 국내 선원 고용질서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중단할 필요성 있음

- 또한 외국인 선원들은 취업기간 내 근무지를 퇴사할 경우 3개월 동안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목포 등 관내 지역에서 브로커 등을 통해 불법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, 이들을 중개하는 브로커의 엄단을 통해 외국인 선원들의 불법취업 행태 차단에 기여함

○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및 유관기관의 협조 촉구

- '20. 5. 20.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, 광주출입국·외국인사무소목포출장소장,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관내 유관기관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여 특정기간 (조기잡이 철 : 7월 ~ 이듬해 1월) 외국인 선원들의 불법취업에 대한 집중단속 필요성을 공유
- 선원 불법 공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(약 2,200만 원)에 대하여는 기소 후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 실시 예정
- 목포지청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브로커 등의 엄단을 통해 외국인 선원들의 불법 취업을 근절하여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근로질서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임